

서울시 전통사찰 역사문화 자원화

서울시, 전통사찰 주지 간담회... 4대 과제 제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과 역사문화 자원화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종로 조계사 안심당에서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서울시전통사찰보존위원장 정범 스님 등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4대 추진과제로는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 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진과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6~9월 서울 소재 전통사찰 58곳을 직접 방문해 사찰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전통사찰들은 개발행위 제한 완화와 주변시설 정비, 문화재 연구,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등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세부 역점사업들을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계획들이 적지 않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사찰 주간(WEEK)이다. 이를 위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전통사찰 보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전통사찰 오픈하우스와 권역별·주제별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한 전통사찰 관광자원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사찰

사찰 주간, 스토리 텔링 등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해 관련 법령 일체 정비 약속도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보 코스 개발 △사찰음식·다례 체험기회 확대 △템플스테이 활성화 △견지동 일대 전통사찰 종합문화공간 구축 △서울시 사찰 고유축제 활성화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불교계 주도로 전통사찰 문화자원 연구 활용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서울시가 행정을 지원하며, 전통사찰의 민원과 행정



서울시는 12월 10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서울 전통사찰 주지 스님 간담회를 열고 전통 사찰 보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담당자를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통사찰 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 사업에 대한 개선과 화재 보험료 부담, 주차공간 확보, 등산로 인접사찰 화장실 정비, 전통사찰 고유 안내표지 설치,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연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와 보전분담금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비오름(생물군집 서식공간)

1등급지 가운데 실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가능한 곳은 등급을 조정하며 서울시 전통사찰의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진행한다. 또한, 전통사찰 관련 정책과 제언, 모니터링을 위해 전통사찰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전통사찰이 함께 노력하면 서울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며 "전통사찰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방문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TV·라디오, 전면 변화하는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이 TV 불교 종합 뉴스를 본격 출발하고 라디오 계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포교 강화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공중파 방송을 지향해오던 불교방송이 불교매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계의 소식을 충실히 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BBS TV는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불교계 소식을 총망라한 종합 뉴스 'BBS 뉴스'를 첫 방송한다. BBS 뉴스는 매일 오전 7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20분간 방송되며 주말 토요일은 같은 시간에 30분 동안 방송된다.

양봉모 보도국장은 "보도 제작 분야에서 새 인재를 영입하고 스튜디오는 새롭게 단장해 불교뉴스 강화에 나섰다. 불교방송이 불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BBS 뉴스는 남·여 전문 아나운서 2명을 영입 불교계 현장 뉴스를 전한다. 특히 지상파 언론사보다 청와라와 국회, 법원, 검찰, 세종청사 등에 출입해 온 노하우를 살려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양 국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일반 사회적 현상을 교계 내부에 적용시키는 뉴스를 발굴 새로운 스타일 불교뉴스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교뉴스 프로그램 개설의 의지를 전했다.

또한 BBS TV는 불교 뉴스 강화와 함께 정통 불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

BBS TV 불교 뉴스 강화 다큐 추가 편성 라디오 노인·다문화 등 계층 포교 확대

한다. 고품격 사찰 탐방 다큐멘터리 <그 절에 가고 싶다> <선지식 법회 시리즈> <BBS 다큐 포커스> <BBS 다큐 스페셜> 등을 개설한다.

라디오 역시 어린이·청소년·노인·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해 애청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BBS는 불교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블록화를 통해 경전 읽어 주는 라디오 '경전의 숲을 거닐다(진행 이미령)', 청소년

프로그램 '네 꿈을 펼쳐라(진행 자용 스님)',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지금도 실버시대(진행 황남채)',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는 한가족(진행 정준영)' 등이 신설 불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박상필 편성제작국장은 "그동안 불교방송은 뉴스 교양 포교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방송을 해왔지만 고유 색깔을 갖지는 못했다. 이번 개편은 불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했다. 불교 내부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불교방송 고유의 색을 찾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도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전했다.

한편, BBS TV는 세계적인 IT기업 애플사의 IPTV네트워크를 통해 12월 12일 0시부터 해외송출을 시작했다. BBS TV는 애플에 런칭한 유일한 한국어방송국 KORTV와 파트너로 활동하기로 계약하고 앞으로 국내방송과 똑같은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애플TV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앞으로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소개를 비롯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말 방송 시상식서 ‘하나님께 영광’ 자제해야”

종평위 방송사에 자제 요청 공문 발송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 멘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특정 종교 언급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자제 요청에 나섰다. 종평위는 12월 10일 연말 시상식 시즌을 맞아 KBS MBC SBS 등에 '종교간 화합을 위해 종교적 신념 표출 자제 요청'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매년 연말 각종 시상식 방송에서 수상자들 중 일부가 특정 종교적

발언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 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려 표출하는 것은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구요" 등의 발언으로 특정 종교를 언급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종평위의 판단이다.

이에 종평위는 공문 발송을 통해 각 방송사 시상식에 참여하는 수상자들에게 특정종교 발언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 표출에 대해 개개인에게 사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즐거움 축제의 장이 종교인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한편, 종평위는 서울시, 안동시, 제주시, 동두천시, 보령시 등에서 설치한 성탄트리 십자가 설치에 대해서도 이를 자제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다. 정혜숙 기자

971호 INDEX

시방세계 신년 햇말이 템플스테이 현황	5	종합 템플스테이 효과 과학적 증명한다 '제네라피' 어떻게 봐야 하나 역사왜곡 소설 문학상 수상 논란	2·3	강의실 증계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우진 스님	8
신행 포교 조계종 경승 활성화 세미나	6	신행 포교 조계종 경승 활성화 세미나	6	학술 문화제 월정사, 출토 유물 소유권 소송 승소	9
				생활속의 금강경 금강경과 달마상법-김선형 교수	24



국보 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왼쪽 사진). 1층 탑신부에 틈새가 벌어져 붕괴 위험이 제기됐다.(왼쪽 사진)



붕괴 위험에 빠진 정림사지 5층 석탑

국보 9호인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 국보 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5층석탑은 백제 7세기 중엽 세워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사학자 홍재선 씨는 "지붕돌받침의 두 돌이 수평이 아니기에 4층 옥개석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4층 옥개석이 무너져 내려 1층 옥개석이 크게 파손된바 있다.

김종오 부여군고도문화사업소 문화재정책담당관은 "현재는 안정화가 된 상태로 기울기 측정 등에서 오차 범위 내로 측정되고 있다"며 붕괴 위험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著)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및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비교하면서 『대승기신론』을 주제적으로 소화해서 강해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해설, 다양한 도표, 명쾌한 문장 등이 돋보인다.

- 불교출판문화상 심사위원 심사평



대승기신론 강해 大乘起信論講解

한자경 著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인도철학)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박사로 박사학위(국학연구)를 받았다. 제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원효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구』, 『유신학』,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종교철학의 전개』, 『단도 철학의 이해』, 『종교의 무아론』, 『21세기(9)의 여명』,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예절 정신철학의 이해』, 『종교철학의 현대판의 이해』 등이 있다.



416면
 값 22,000원